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새롭게 시작하며

‘송구영신’이란 단어는 매력적이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는다.” 들으면, 설레기까지 한다. 왜일까? 우리 대부분은 지난 시간을 ‘절망’으로 기억한다.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시간만 흘러보냈다는 자괴감으로 괴로워하는 게 보통의 인간이다.

사람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분절된 시간은 그 때마다 과거를 잊고 새 출발할 명분을 제공한다. 지난 시간의 절망을 인위적으로라도 잊으면 것이 시간을 나눠놓은 이유일 거다.

그 효과는 엄청나다. 우리 대부분은 지난해와 새해를 엄격히 구분한다. 그리고 다짐을 한다. 과거는 흘러갔으니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나, 해는 바뀌었지만 풍경은 변함없다. 진눈깨비가 그야말로 추적추적 내리는 날, 폐지 리어카를 끌고 도로 한 복판을 기다시피 걷는 노파도 여전히 있다. 영하 10도를 훌쩍 넘는 날씨, 어느새 차디찬 바람 통로가 되어버린 지하철 계단에서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노숙자도 그대로다.

70m 상공의 굴뚝, 사방 1m의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같이 된 바람을 여전히 맞고 있다. ‘하늘 갑옷’에서 이들은 석고상이 되어가고 있다. 바닷속은 또 어떨까. 깊은 물속 세월은 멈췄다. 지난 봄 영문도 모른 채 ‘바다 갑옷’에 갇힌 9명이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누구도 모른다.

우리를 둘러싼 풍경은 정물이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메트로 폰디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폭력은 인간의 속명이다. 인간의 폭력성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이는 다른 그 무엇이 죽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어떤 게? 인간 생명의 토대인 다른 새끼의 희생은 자연적의 순환과정일 뿐이다. 생명 유지를 위한 폭력성은 그런 대로 정당하다.

실제 문제되는 것은 따로 있다. 감정적으로 불편하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거다. 더 나아가 경멸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

없는 정물로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옛 것을 보낸다.”란 말에 의도적 망각 혹은 불편한 것에 대한 무시가 숨어 있지 않나 경계해야 한다.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망각이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불편한 과거를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는 현재를 지배한다. 때문에 시작은 운명적으로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깔끔한 시작을 원하지만 유령처럼 드리운 과거의 시간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씹김곳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오히려 붙잡고 늘어져 연대해 해결해야 한다.

사람을 못하는 한자인 ‘人’은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모를지기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다. 연대와 공감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귀중한 가치다. 우리 인간이기에 얼마든지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공감이다. 타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한없이 취약한 존재라 사실이 가슴을 울려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인간이 야수와 다른 점은 전혀 없다. 도로 위 노파, 지하철 계단의 노숙자, 굴뚝 위의 노동자, 바닷속의 실종자.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공감에 가슴이 아파올 때 비로소 우리 짐승이 아닌 인간이 될 수 있다.

청양의 해가 밝았다. 우리 오늘 새로운 시간의 마디에 서 있다. ‘시작’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다. 희망이 담겨 있어서다.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건 그래서 기분 좋은 선택이다.

이제 출발해야 한다. 하나, 아픔에 떠는 그들 아니 우리를 남겨둔 채 선불리 새로운 시작을 얘기할 수는 없다. 무시와 의도적 망각은 폭력이다. 이제 그 폭력을 줄여야 한다. 누군가가 떨고 있다면, 울고 있다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뭘지는 알려고 애써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서로에게 ‘서로’여야 한다. 따뜻한 울림이어야 한다. 그래야 목은 해를 진정으로 보낼 수 있다. 그래야만 신신하게 새해를 맞을 수 있다.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송 우 진 원불교 상무대학교당 주임교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의 놀라움

이랑 만났다!” 하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교실 내에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슨 유명인사도 아니고 저를 만났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라고 아주 큰 목소리로 자랑하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가끔 보는 사이도 아니고 매일 보는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마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루하루를 그냥 덤덤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죽은 듯 잠들어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도, 저절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심장이 쿵쿵 끊임없이 뛰는 것도, 손바닥에 흐르는 따뜻한 온기도 모두 그저 나에게 당연한 일뿐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오고 있지요.

‘입이 똥조에게’라는 동화책이 있습니

다. 어느 날 입은 눈, 코, 귀, 혀, 손, 발 등과 서로 자랑을 늘어놓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입은 지독한 냄새가 나고 만날 똥을 싸고 방귀를 끼는 ‘똥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똥조’가 없어야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똥조’가 없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맛있게 먹은 음식들이 소화된 뒤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갔다가 나갈 곳을 찾지 못해 입으로 음식물들을 토하고 말았습니다. 입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이로움과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기 때 문일 겁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사소하게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귀마운 일인가요? 만약 무엇무엇이 없다면, 만약 무엇무엇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느끼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숨 쉬고, 세상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하찮고 귀찮게 느껴진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종교활동을 하며 군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그립고 간절하게 느끼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입대 전에는 그렇게 누리고 살던 것인데 잃어버리고 나니 그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당연한 것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해 괴로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주 흔하고 당연하지만 없어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삶은 경이로움과 더욱 밀도 있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 고



강 세 운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공재 윤두서’를 보고

미술관 공간이 아닌 국립광주박물관 ‘공재 윤두서’ 특별전(은 18일까지)에서 백동거울과 함께 전시되어 있는 공재 자화상과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와는 또 다른 맥락 속에서 새롭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역시나 작품이 주는 위엄과 감동은 한결같았다.

공재 윤두서는 진경산수화, 풍속화, 문인화 등에서 조선 후기 화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전시는 300년 전 윤두서라는 인물의 다양한 관심들과 천재적인 재능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그의 서책들과 인물화, 산수화, 풍속화, 지도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적, 예술적 소양을 살필 수 있는 필적과 서화를 총망라하여 만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재의 화업을 둘러싼 자손들과 그를 배우려 하였던 후대 화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근대기 소치 허련까지 아우르고 있어 그가 후대에 끼친 영향력과 호남화단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드문 기회라 할 수 있다.

전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작품은 공재의 평민들을 바라보는 따

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나물 캐기’였다. 비탈진 언덕 위에서 한 여인은 망태기와 칼을 들고 허리 굽혀 나물을 캐고 있고, 다른 한 여인은 고개를 돌려 나물을 찾고 있는 장면을 포착한 작품이다. 앞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려왔던 인물화에서 벗어나 감상자들에게 여러 해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뒷모습을 그린 인물 표현법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당시 화풍과 달리 현대적인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머리에 수건을 돌렸고 치마를 무릎까지 걸어올려 일하고 있는 300년 전 일상적인 평범한 시골 아낙들을 보다 옛 우리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정서가 이 작품과 오늘날 우리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와 함께 비교해서 보면 흥미로운 작품은 손자인 윤용(1708-1740)이 그린 간송미술관 소장품 ‘나물 캐는 여인’이다. 좀 더 간략해진 배경화면의 효과로 인물이 더욱 강조된 작품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빛은 두부진 여인의 담담한 뒷모습을 보다 노동하는 여성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데, 흡사 민중 미술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은 제주 출신의 현대작가인 강요배가 목판으로 공재 자화상을 재해석한 ‘공재선상 측면상’이다. 이는 민중 미술계 화가로 리얼리즘의 충실한 작품을 그려왔던 현대작가가 사색과 관찰을 중시하며 대상의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던 공재 윤두서에 바치는 오마주(Hommage)가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백동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그린 정면 자화상의 강렬함과 다르게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고 차분히 생각을 집착하고 있는 공재의 모습이 보인다. 어쩌면 백동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공재의 자화상에서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볼 수 있었다면, 강요배의 측면상은 자인들의 불행과 죽음을 목격하며 슬픔과 고뇌에 찬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공재의 모습과 만날 수 있다.

공재의 옆모습이 궁금한 관람자들 그리고 현대작가가 어떻게 옛 작품을 재해석했는지 궁금한 관람자들은 이 작품을 꼭 챙겨보시길 바란다.

눈길 과속 운전 위험... 20~50% 감속 운행을

요즘 광주·전남지역에 폭설이 찾아지고 있다. 눈으로 덮힌 풍경은 참 아름답지만 눈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하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과속으로 인해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눈이 쌓인 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눈이 오지 않는 날보다 1.6배 많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눈이 2cm미만 쌓인 경

우에는 최고속도의 20% 감속운행을 하여야 하며 폭설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그리고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를 줄여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또한 운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 현상’이란 도로표면의 작은 틈새로 눈이 스며들어 얼어붙는 현상으로 검은색의 아스팔드가 얼어붙은 얇고 투명한 얼음이 잘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아이스는 노면온도보다 낮은 산모퉁이나 교량, 터널 출구부, 그늘진 커브구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결빙을 줄여서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빙판길에서는 건조한 노면에 비해 제동 거리가 2~3배 길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가 심하거나 공기압이 낮으면 제동거리는 더욱 길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마모 상태와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도로관리 기관은 제설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 제설작업 속도는 아주 빠른편이다. 더욱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작업차량에 대해서는 양보운전의 미덕을 가졌으면 좋을 일이다. 눈오는 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오정선·담양군 대대전면 중육리

社 說

영암 F1 위약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급낸 F1(포뮬러원) 일정에서 영암 대회를 최종적으로 제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1이 열리지 않게 됐다. 영국 BBC 등 외신은 7일 F1 그랑프리 상임직 권리를 보유한 버니 에클스톤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 회장의 요청으로 전담도가 추후 일정에 포함됐으나 결국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고 FIA 대변인의 설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년 개최권료의 절반 수준인 2000만 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F1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올해는 적자 목적을 위해 개최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며, 2012년 6월 1일 체결한 레이스 프로모

션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약금 규모만 1회 개최권료인 4370만 달러(480억 원)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한다. 전남도는 “계약 전반이 불평등하게 작성돼 협상을 계속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6년까지 의무적으로 F1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위약에 따른 FOM 측의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영암 F1대회는 지난 4년 동안 빛잔치의 연속이었다. 4차례 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한 누적적자가 1910억 원, 경주장 및 도로 건설 등에 쏟아부은 돈만 8000억 원이 넘는다. 위약금까지 몰게 되면 빚에 빚을 더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전남도는 FOM의 소송전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위약금을 몰더라도 협상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서를 불리하게 작성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전남도 관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과 혁신도시 기관 상생 모색하라

전남대와 조선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들이 7일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산학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늦은 감이 있지만 양측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다짐했다니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총장들에게 지역 대학과 인재 육성이나 취업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졸업생들이 100% 취업이 가능한 초전도학과를 지역 대학에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장들도 “한전과 대학의 협력 강화는 어느 특정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모든 대학이 협력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에너지와 관련해 인력양성 방향을 제시해 주면 대학에서 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누구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들

의 기대치가 높다. 중요한 점은 입주 공공기관과 대학이 상생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총장뿐 아니라 교수들까지 한전은 물론 16개 기관과 기업 모두를 찾아다니며 만나야 한다는 얘기다. 취업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입주 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육성 방안을 찾고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입주 기관들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 한다. 때마침 8일 정부가 혁신도시 지역 대학생 채용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권고조치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날 조 사장이 한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혁신도시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그의 철학을 높이 평가한다. 혁신도시가 단순한 분사 이전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無 等 鼓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의 이미지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오래 전, 아는 이가 던진 질문에 별 생각 없이 답했다. 귀한 선물을 받았다. 장서표(藏書票)였다. 장서표는 책 주인이 자신의 책에 붙이는 작은 판화 작품을 말한다. 보통 책 주인의 이름과 그에게 어울리는 이미지, 장서표를 가리키는 라틴어인 ‘EX-LIB-RIS’가 함께 새겨진다. 장서표에는 내가 말한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개인 사진이 거의 없는 내게, 장서표

는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식일지도 모른다. 장서표는 생각도 들었다. 장서표를 널리 알린 건 판화작가 남궁 산(www.namkungsan.co.kr)이다. 남 작가는 유명 예술인들의 장서표를 모아 전시회를 열었고 ‘인연을, 새기다’라는 책도 펴냈다.

남궁산의 장서표는 딱 그 인물이다. 예정과 관심이 함께 담긴 결과다. 자전거와 몽당연필이 새겨진 장서표는 작가 김훈의 것임을 누가봐도 알 수 있다. 원고지 속에 묻고기가 파다이고 있는 판화는 안도현 시인의 장서표다. 지루 본 위에 발자국을 새긴 건 여행가 한비야다. 독일에서 시작된 장서표는 19세기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유행했다. 현존

최고(最古) 장서표는 1516년 독일에서 제작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초상, 서가 모습, 풍경 등을 새겼고 19세기 말에는 누드도 주 소재였다. 동양에서는 장서표와 같은 기능으로 장서인(藏書印)을 사용했다. 책에 찍어서 그 소유를 밝히는 도장이다. 최근 조선시대 ‘자치통감강목’ 완결 발견 소식이 전해졌다. 세종 시대 임금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장인 경연(經筵)에서 활용했던 책 59권

59책이 중국 상하이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세종 때 사용됐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약탈 당한 뒤 상하이 도서관 소장본이 되기까지 ‘자치통감강목’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 “자치통감강목”의 유량의 역사를 밝힐 수 있었던 건 바로 장서인 덕이었다. 자신의 물건에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건 자연스럽다. 책의 경우 보통 날짜와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간단한 단상을 적기도 한다. 거창한 장서인이나 장서표가 아니라라도 자신만의 표식을 하나쯤 갖는 것도 어떨까 싶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열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